

기업가특성이 벤처창업의지와 창업에 대한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성진*

A Study on the Proclivity for Entrepreneurship and Its Affect on the Venture Creation

Sung Jin Lee*

요약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기업가특성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기업가특성에 관한 연구의 진행이 부족한 것은 기업가특성을 규명하는 이론과 방법이 기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가특성에 관한 적절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모델은 기업가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성취동기, 위험감수성, 혁신추구성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업가 특성이 높은 학생집단이 그렇지 않은 학생집단보다 창업의지와 창업에 대한 자신감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취동기, 위험감수성, 혁신추구성 등 대부분의 기업가특성이 창업의지와 창업에 대한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Abstract

Despite intensive inquiry, we still know relatively little about the entrepreneurship. The lack of progress in entrepreneurship may be due to the theories and methods used to identify those characteristics. But the appropriate approach for studying entrepreneurial behavior remains contentious. This study model used three themes(achievement motivation, risk-taking propensity, and preference for innovation) in order to measure a proclivity for entrepreneurship. In this study,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lan for venture creation and the confidence for venture creation between high-entrepreneurship group and low-entrepreneurship group.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proclivity for entrepreneurship is significantly related to create new venture and to build up confidence regarding venture creation.

▶ Keyword : Achievement Motivation, Risk-Taking Propensity, Preference for Innovation, Plan for Venture Creation, Confidence regarding Venture Creation

• 제1저자 : 이성진
• 접수일 : 2006.09.13, 심사일 : 2006.09.22, 심사완료일 : 2006.11.18
* 오산대학 컴퓨터정보계열 겸임교수

I. 서론

기업가정신이 발휘되지 않는 기업은 혁신마인드가 소멸하게 되고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성장엔진을 발견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여 그것을 사업화하는 기업가정신은 개인 및 기업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의 혁신적 기술활동은 대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경쟁적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벤처기업 창업은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등 국가경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벤처기업 창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는 사회전반에 걸쳐 증가하고 있다[2]. 벤처기업과 같은 중소기업들이 고용증대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그 조직의 핵심인 기업가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기업가에 관한 주된 연구경향 중 하나는 기업가의 개인 특성과 창업성공의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즉 기업가의 개인 심리적 특성을 조사하고 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들을 조사함으로써 창업과 사업운영의 성공요인을 밝히려는 것이다. 벤처기업의 성과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진 선행연구는 대개 기업가 개인특성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벤처기업의 성과는 기업가특성과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24][36].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대학 교육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 벤처기업의 성공은 대학과 벤처기업간의 산학협력은 물론 대학의 질 높은 벤처창업 교육에 있었다. 미국의 벤처창업교육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오래되었고 거의 모든 대학에서 장기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그 역사가 일천하고 아직도 피상적인 수준이다[3]. 개설되어 있는 대학도 학과개설을 하는 것보다는 단순히 하나의 과목으로 개설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년제 대학의 경우 단 14.1%의 대학만이 관련 강좌를 개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미국의 경우 1985년을 기준으로 봐도 253개 대학에서 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그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41개 대학이 경영학 분야가 아닌 공학 분야에서 과목이 개설되고 있다고 한다[35].

본 연구는 기업가특성이 벤처기업 창업의지와 창업에 대한 자신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

다. 이를 위해 우선 선행연구를 통해 기업가특성에 관련된 요인들을 발견하고, 오산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가특성과 창업의향,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기업가특성이 높은 집단과 기업가특성이 낮은 집단을 구분한 후 집단 간 창업의향과 창업에 대한 자신감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기업가특성 중 어떤 요인이 창업의지와 창업에 대한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함으로써 창업교육과 기업가정신의 고취의 중요성에 대해 제고하고자 한다.

II. 기업가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기업가특성은 기회를 찾거나 창조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원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여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행동 또는 과정을 의미한다[7].

기업가특성에 관한 연구는 많은 연구자와 실무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데 그 이유는 기업가특성을 규명하는 방법론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기업가특성에 관한 연구는 벤처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학자와 실무자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0][11][33].

기업가특성은 다차원적이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기업가특성 자체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가특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결과들을 보면 기업가들이 실제로 다른 일반 경영자들보다 이러한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관해 일치된 견해는 없다. 기업가특성이 실제로 다른 일반경영자와 기업가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특성이라고 결론 내리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많은 선행연구에서 공유되는 속성들로 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로 한다.

기업가특성이 벤처기업의 성과와 관련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는 많이 있으며, 이러한 기업가 특성은 기업가의 행동을 이끌게 되는 주요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진 성취동기(achievement motivation), 위험감수성(risk-taking propensity), 혁신추구성(preference for innovation)을 사용하였다[8][21].

표 1. 기업가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 연도	저자	특성
1894	Mill	위험감수
1917	Weber	공식적 권한의 원천
1934	Schumpeter	혁신, 진취성
1954	Sutton	책임감
1959	Hartman	공식적 권한의 원천
1961	McClelland	위험감수, 성취욕구
1963	Davidson	이탈/독립심, 책임감, 자존심
1964	Pickle	인간관계의사소통능력/기술지식
1971	Palmer	위험추진능력
1971	Harnaday와 Abound	성취욕구, 자율성, 독립심
1973	Wright	권력욕구
1974	Borland	내적 통제부위
1974	Liles	성취욕구
1977	Gasse	개인 가치관의 독특성
1978	Timmons	자존심, 목표추구성, 창조성
1980	Sexton	열정적/이탈
1981	Welsch와 White	자기통제욕구, 도전의식, 중간 정도의 위험감수
1982	Dunkelberg와 Cooper	성경지향적, 독립심, 장인의의식

자료원 : 이장우, 벤처창업, 매일경제신문사, 1998.

1. 성취동기

성취동기(achievement motivation)의 개념은 Murray(1938)의 인간의 성취이론에 소개되어 McClelland(1961, 1965)에 의해 발전되어 왔으며, 그 이후 기업가적 행동과 기업가 정신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 발전되었다[34].

McClelland의 연구방법론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나 기업가특성으로 성취동기는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기업가는 일반인들보다 성취 지향적이며[20], 성별과는 관계가 없다고 한다[13]. 높은 성취동기를 가진 기업가는 도전적 목표와 목표수행의 수단으로 가치 피드백을 설정하여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높은 성취동기는 변하지 않고 나타난다고 한다[25].

Steers(1975)는 일에 대한 만족도 및 일의 성과와 성취동기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성취동기가 높은 근로자일수록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더 만족하였으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더 많은 성취가 있었다는 것이 규명되었다[32].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기업가들이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성취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6], 조직구조와 신생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의 성취동기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22].

비록 성취동기와 기업가정신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표본 및 측정도구의 타당성 문제 등으로 일치된 견해는 없으나, 높은 성취동기는 벤처기업의 성과와 상관관계가 있

으며, 기업의 생존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은 문제해결을 위해 주도적이며, 목표를 제시하며,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 열성적으로 노력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취동기는 기업가특성에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2. 위험감수성

위험감수성(risk-taking propensity)은 의사결정을 할 때 기회를 포착하는 개인의 특성으로 효과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27]. Schumpeter(1934)를 비롯한 일부 실무가와 학자들은 위험감수성이 기업가의 특성이 될 수 없다고 했지만, 많은 선행연구에서 위험감수성은 단순한 상황적 변수가 아니라 기업가특성이라는 관점을 지지해 왔다.

Slevin과 Covin(1990)은 위험감수성을 예측가능한 수익률을 가진 낮은 위험의 프로젝트보다 높은 위험의 프로젝트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용기있게 적극적으로 기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욕이라 하였다[28].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기업가를 수익창출을 위해 행동하고 위험을 가정한 감수력과 예견력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기업가는 변화를 시도하므로 불확실성과 위험을 완전히 회피할 수 없다고 한다[14]. 또한 위험회피가 저성장 기업을 이끄는 기업가보다 고성장 기업을 이끄는 기업가 사이에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기업가는 구조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관리자보다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며, 실제적으로 의사결정시 궁극적 책임을 감수해야만 한다[31].

일부 연구에서는 기업가의 위험감수성을 유의한 요인으로 간주하지 않았으며, 위험감수성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와 실패한 기업가를 구분할 수 없다고 하였다[9].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위험감수성은 일반적으로 기업가와 비기업가를 효과적으로 구분하는 후천적 특성이라고 단정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에서 기업가들은 일반인과 관리자보다 높은 위험감수성을 갖고 있음이 판명되었으며, 특별히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더욱 그러함으로 밝혀졌다. Colton과 Udell(1976)은 창조성과 유연성을 더한 위험감수성은 성취동기 보다 더 사업을 시작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창업기업의 설립자들의 경우 보다 높은 위험감수성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2].

위험감수성은 근본적으로 신규사업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기업가적 과정에 내재하여 있는 특성이므로 기업가의

위험감수 성향 또는 과감한 행위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에 틀림없으며[2], 기업가의 후천적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3. 혁신추구성

혁신추구성(preference for innovation)은 기업활동 속에서 연구개발, 신제품개발, 서비스개발, 향상된 제품라인, 일반적 기술향상을 강하게 추구하는 경향이다. 혁신추구성은 Schumpeter(1934)에 의해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생산기능의 변신을 혁신으로 정의하고 가치의 변화보다는 기능 자체의 변화가 혁신의 기본임을 강조하고 있다. 창조성(creativity)과 혁신(innovation)은 기업가의 고유한 특성이며, 일반관리자와 기업가를 구분하는 주요 요인이다. 많은 연구들에서 혁신은 기업가의 기능적 특성으로 빈번히 정의되어 왔으나 상대적으로 실증연구는 그동안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Schumpeter(1934)는 신제품과 생산방식의 소개, 신 시장 및 새로운 공급원 개척, 산업 환경인식 등으로 기업가의 혁신을 기술했다. 이러한 행동들은 기업가의 창조적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의 창조적 능력은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방법도 서로 다르다고 한다[34].

Kirton(1989)의 Adaption-Innovation(KAI) 이론에 의하면 기업가정신은 의사결정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더 많은 혁신적 방법을 사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며, 기업가는 대기업의 관리자보다 더 혁신적이라고 한다[19]. 물론 KAI의 타당성과 요인구조 문제에 대해 의문이 제시되기도 했지만[23], 많은 연구들은 혁신추구성을 기업가와 일반 관리자를 구분하는 심리적 특성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외에도 창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일반경영을 전공하는 학생보다 높은 혁신추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25][26], 이론적으로 이는 사업가들의 성공패턴이 창조성과 혁신으로 정의되는 사실에 기인될 수 있다.

반대로 일반 관리자들의 성공은 직성과 효율성에 의해 정의되는 경향이 있다. 기업가들은 일반 관리자보다 높은 혁신추구성을 가지며 빠른 성장을 하는 기업의 설립자도 일반 관리자보다 높은 혁신추구성을 보이고 있다[29][30]. 혁신추구성은 기업가의 후천적 특성 중에서 창조적 특성으로 간주되며 기업가특성을 나타내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III. 연구조사방법

1. 변수의 정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기업가특성 수준별로 창업의지와 창업에 대한 자신감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고, 기업가특성 중 어떤 요인이 창업의지와 창업에 대한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기업가특성 수준을 규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발견한 성취동기(achievement motivation), 위험감수성(risk-taking propensity), 혁신추구성(preference for innovation)을 독립변수로 이용하였다. 종속변수는 학생들의 창업의지와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이용하였다.

① 성취동기

본 연구에서는 성취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Achievement Scale of the Personality Research Form(PRF)를 이용하였다. PRF는 Murray(1938)가 말한 20개의 욕구에 기초하고 있으며,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PRF는 보편적으로 진단한 개인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도구로 규명되었으며, PRF에 대한 신뢰성과 구조적 타당성은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증명되었다[17].

본 연구에 사용된 성취동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5점 척도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어려운 일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완수하려는 사람, 높은 수준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경쟁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사람.

본 연구에서 성취동기 항목의 Cronbach alpha는 0.8315로 측정되었고, 타당성분석결과도 유의하게 측정되어 5개 변수를 모두 분석에 사용하였다.

② 위험감수성과 혁신추구성

본 연구에서는 Risk-Taking and Innovation Scales of the Jackson Personality Inventory(JPI)를 이용해 위험감수성과 혁신추구성을 측정하였다[18]. JPI의 구조는 PRF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JPI의 신뢰성과 타당성 역시 많은 선행연구들에 의해 증명되었다[13][15][18][26].

본 연구에서 위험감수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도박을 즐기고 운에 맡기는 것을 즐기는 사람, 불확실한 결과에 놓인 상황도 기꺼이 도전하는 사람, 위험요소가 있는 모험이나 진기한 경험을 즐기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 일을 하는데 있어 위험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

본 연구에서 위험감수성의 Cronbach alpha는 0.7413으로 측정되었으나, 타당성분석결과 도박을 즐기고 운에 맡기는 것을 즐기는 사람의 경우 요인적재량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이를 분석에서 제외하고 4개 변수만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혁신추구성은 5점 척도로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다.

창조적이고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 독창력이 풍부한 사람,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개발하는데 흥미를 느끼는 사람, 새로운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 즉흥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

본 연구에서 혁신추구성의 Cronbach alpha는 0.8102로 측정되었고 타당성분석결과도 유의하게 측정되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인분석 결과 측정된 요인의 총 설명력은 60.0%로 나타났다. 각 변수들의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특성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요인 1은 성취동기(achievement motivation)로, 요인 2는 혁신추구성(preference for innovation)으로, 요인 3은 위험감수성(risk-taking propensity)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③ 창업의지

위험감수성 등과 같은 기업가특성이 창업을 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기업가특성이 신규사업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게 한다[12].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창업의지를 측정하기 위해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④ 창업에 대한 자신감

창업 관련지식이나 기업가의 고유한 특성은 창업동기를 제공하며 성공적인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창업을 했을 경우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감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2. 요인분석결과
Table 2. Result of Factor Analysis

독립 변수	요인	요인 1	요인 2	요인 3	설명력
		성취동기	혁신추구성	위험감수성	
X2	.809	.202	-3.43E-02	22.3	
X5	.804	.151	6.46E-02		
X3	.744	9.25E-02	.203		
X4	.701	6.85E-02	.177	20.3	
X1	.670	.200	.214		
X15	.130	.748	.102		
X13	.146	.733	.195		
X14	.351	.700	-.121	17.4	
X11	.142	.699	.337		
X12	2.40E-02	.635	.376		
X10	-5.01E-02	.100	.778		
X9	.265	.165	.741		
X7	.221	.108	.694		
X8X	.153	.321	.588		

- 주) X1 :어려운 일 적극적 원수 X2 :높은 수준 삶 위해 노력
- X3 :목표달성 위해 노력 X4 :경쟁자에 긍정적 대응
- X5 :미래를 위해 노력 X6 :불확실한 상황에 도전
- X7 :모험, 진기한 경험 즐김 X8 :어떤 위험도 무릅쓰
- X9 :일을 하는데 위험감수 X10:창조성, 창의력
- X11:독창력 X12:문제발생시 해결에 흥미
- X13:아이디어를 높이 평가 X14:즉흥적인 것 좋아함

2. 가설의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가특성이 높은 학생집단과 기업가특성이 낮은 학생집단 간 창업의지와 창업에 대한 자신감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업가특성 중 어떤 요인이 창업의지와 창업에 대한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성취동기, 위험감수성, 혁신추구성을 학생들의 기업가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러한 기업가특성은 학생들에게 창업동기를 제공하고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줄 것이며 성공적인 창업으로 연결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 연구가설 I
기업가특성이 높은 학생집단과 기업가특성이 낮은 학생집단 간 창업의지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연구가설 II
기업가특성이 높은 학생집단과 기업가특성이 낮은 학생집단 간 창업에 대한 자신감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연구가설 III
아래의 기업가특성은 학생들의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1 성취동기, III-2 혁신추구성, III-3 위험감수성

연구가설 IV
아래의 기업가특성은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IV-1 성취동기, IV-2 혁신추구성, IV-3 위험감수성

3. 자료수집과 통계분석방법

기업가특성과 창업의지,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주제로 2005년 9월 5일부터 10일간 오산대학 학생들에게 설문지 200부를 배부하여 18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응답한 내용 중 부분별 무응답을 포함한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160부의 설문을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3. 표본샘플
Table 3. Research Sample

구분		빈도 (n=160)	백분율	누적백분율
성별	남	81명	50.6%	50.6%
	여	79명	49.4%	100%
학년	1학년	102명	63.7%	63.7%
	2학년	58명	36.3%	100%
전공	인문사회계열	94명	58.7%	58.7%
	공학계열	66명	41.3%	100%
나이	20세 이하	62명	38.7%	38.7%
	21세 - 24세	66명	41.3%	80.0%
	25세 이상	32명	20.0%	100%

학생들로부터 회수한 설문지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우선 기업가특성에 대한 평균값을 구해 평균값을 기준으로 기업가특성이 높은 학생집단과 기업가특성이 낮은 학생집단을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두 집단 간 창업의지와 창업에 대한 자신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각각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가특성 중 어떤 요인이 창업의지와 창업에 대한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실증분석

본 연구는 기업가특성이 높은 학생집단과 기업가특성이 낮은 학생집단 간 창업의지, 창업에 대한 자신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성취동기, 위험감수성, 혁신추구성을 이용해 기업가특성이 높은 학생집단과 기업가특성이 낮은 학생집단을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창업의지,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기업가특성이 높은 학생집단과 기업가특성이 낮은 학생집단 간 창업의지의 차이를 t검정을 이용해 비교 분석하였다.

1. 예비분석

가설검증을 하기 위해 우선 기업가특성 수준별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선정된 15개의 변수 중 타당성문제 때문에 도박을 즐기고 운에 맡기는 것을 즐기는 사람에 관한 변수를 제외하고 14개 변수를 이용해 기업가특성 수준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표본으로 선정된 오산대학 학생들의 기업가특성의 평균값은 3.3366으로 보통보다 다소 높게 측정되었다. 평균값보다 높은 집단을 기업가특성이 높은 학생집단(n=83)으로, 평균값보다 낮은 집단을 기업가특성이 낮은 학생집단(n=77)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성별, 학년, 전공 등이 창업의지와 창업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을 주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음은 성별, 학년, 전공별 t검정 결과이다.

표 4. 창업의지 예비분석
Table 4. Preliminary Analysis of a Plan for Venture Creation

구분		N	창업의지	t	Sig
성별	남	81	3.20	1.240	.217
	여	79	3.03		
학년	1학년	102	3.12	.097	.922
	2학년	58	3.10		
전공	인문사회계열	94	3.09	-.467	.641
	공학계열	66	3.15		

본 연구는 기업가특성 수준별로 창업의지와 창업에 대한 자신감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별, 학년, 전공 등과 같은 인구통계적 변수가 창업의지, 창업에 대한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면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에서 통

제되어야만 할 것이다.

<표 4>와 같이 성별, 학년, 전공별로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 창업의지에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성별, 학년, 전공별 학생들의 창업의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5. 창업에 대한 자신감 예비분석
Table 5. Preliminary Analysis of a Confidence regarding Venture Creation

구분	N	창업에 대한 자신감	t	Sig	
성별	남	81	3.46	1.761	.080
	여	79	3.20		
학년	1학년	102	3.37	.750	.455
	2학년	58	3.26		
전공	인문사회계열	94	3.31	-.371	.711
	공학계열	66	3.36		

<표 5>는 성별, 학년, 전공별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자신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창업의지와 마찬가지로 성별, 학년, 전공별 창업에 대한 자신감의 차이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인 기업가특성이 높은 학생집단과 기업가특성이 낮은 학생집단 간 창업의지와 창업에 대한 자신감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성별, 학년, 전공과 같은 인구통계적 변수들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2. 기업가특성 수준별 창업정신의 차이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기업가특성 수준별로 창업의지와 창업에 대한 자신감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가설검증을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6>은 기업가특성 수준별로 창업의지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나타낸 결과이다. t검정결과 t값은 2.793으로 창업의지의 경우 기업가특성이 높은 학생집단과 기업가특성이 낮은 학생집단 간에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기업가특성이 높은 학생집단(3.31)일수록 기업가특성이 낮은 학생집단(2.93)보다 창업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1은 채택된다.

표 6. 기업가특성에 따른 창업의지의 차이
Table 6. A Difference of a Plan for Venture Creation by Entrepreneurship

구분	낮은 집단(n=83)		높은 집단(n=77)		t	Sig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창업의지	2.93	.808	3.31	.921	2.793	.006
비교결과	낮은 집단 < 높은 집단					

<표 7>은 기업가특성이 높은 학생집단과 기업가특성이 낮은 학생집단 간 창업에 대한 자신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기업가특성이 높은 학생집단(3.64)이 낮은 학생집단(3.05)보다 창업에 대한 자신감이 높게 측정되었다. t검정결과 t값은 4.237로 기업가특성이 높은 학생집단과 기업가특성이 낮은 학생집단 간 창업에 대한 자신감도 유의한 차이가 있게 나타났다. 연구가설 2는 채택된다.

표 7. 기업가특성에 따른 창업에 대한 자신감의 차이
Table 7. A Difference of a Confidence regarding Venture Creation by Entrepreneurship

구분	낮은 집단(n=83)		높은 집단(n=77)		t	Sig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창업에 대한 자신감	3.05	.868	3.64	.887	4.237	.000
비교결과	낮은 집단 < 높은 집단					

이와 같이 기업가특성과 창업의지, 창업에 대한 자신감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 벤처환경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창업 실패 사례를 보면 다수가 한 번도 제대로 된 창업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사업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술이나 아이디어만 가지고 도전한 결과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6].

따라서 무조건적인 창업지원, 시도보다는 정책적으로 학생들에게 벤처창업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깊이 판단해야만 한다. 대학도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선후배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험실 벤처를 활성화하는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기교육 과정에서 기업가정신 및 기업마인드 함양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가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창업교육 및 훈련 등을 지속한다면 창업의지

를 높일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창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기업가특성과 창업정신의 관계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기업가특성을 나타내는 성취동기, 혁신추구성, 위험감수성 중 어떤 요인이 창업의지와 창업에 대한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가설검정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은 기업가특성이 학생들의 창업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성취동기는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혁신추구성과 위험감수성이 5% 유의수준에서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III-1은 기각되고, 연구가설 III-2와 III-3은 채택된다.

표 8. 기업가특성과 창업의지의 관계
Table 8. A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Planning for Venture Creation

독립변수	회귀계수	T-Value	Sig. T
성취동기	.094	1.263	.208
혁신추구성	.227	3.043	.003
위험감수성	.260	3.481	.001

R Square = .368 D.F. = 3, 156
F = 7.656 Sig. F = .000

<표 9>는 기업가특성과 창업에 대한 자신감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성취동기, 혁신추구성, 위험감수성 모두 창업에 대한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따라서 연구가설 IV-1, IV-2, IV-3은 모두 채택된다.

표 9. 기업가특성과 창업에 대한 자신감의 관계
Table 9. A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Confidence regarding Venture Creation

독립변수	회귀계수	T-Value	Sig. T
성취동기	.142	1.984	.049
혁신추구성	.317	4.414	.000
위험감수성	.277	3.865	.000

R Square = .444 D.F. = 3, 156
F = 12.786 Sig. F = .000

연구가설 검정결과를 보면 기업가특성 중 대부분의 요인이 학생들의 창업의지와 창업에 대한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창업관련 지식이나 기술을 학생들에게 교육시켜 성공적인 창업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5].

또한 대학들은 기업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특성화된 교육과정개발에 박차를 가해 학생들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기업과의 교류를 통해 공동 기술개발, 벤처기업 창업 등 다양한 사업을 벌여 나가며 지속적인 변화도 시도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고 지속적으로 창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학생들이 실제 창업을 했을 때 자신감 향상과 더불어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눈부실 정도의 급성장세를 보여 왔던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의 양적 성장은 성장성과 수익성 없는 나약한 벤처기업의 출현을 자극하였고, 그 결과 장기적 수익보다는 단기적 이익만을 중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의 거품론이 현실화되어 가고 코스닥의 주가하락, 도덕적 해이현상 등 벤처기업 위기론이 나타나게 된 것도 사실이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구조적 정체에서 탈피한 유연한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인의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분야에 도전하는 벤처창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가특성 수준별로 창업의지와 창업에 대한 자신감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고, 기업가특성 중 어떤 요인이 창업의지와 창업에 대한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기업가특성이 높은 학생집단이 기업가특성이 낮은 학생집단보다 창업의지와 창업에 대한 자신감 모두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기업가특성을 나타내는 성취동기, 혁신추구성, 위험감수성 대부분의 요인이 창업의지와 창업에 대한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벤처창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이 시기에 왜 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을 고취시켜야만 하는가에 대한 논점을 제시한다. 학생들에게 체계화된 창업교육을 제공하고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며 창업에 대한 지식과 자신감을 부여하는 것은 벤처창업의 성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창업정신은 촉진될 것이고 이는 성공적인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기업가특성이 창업의지와 창업에 대한 자신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한

연구였다. 향후 본 연구는 실제 기업가들의 기업가특성을 측정하여 해당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확장되면 보다 더 유용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영문, 대학에서의 창업관련 학과 및 과목개설 현황, 성공마을, 2004. 6.
- 2) 이장우, 벤처창업, 매일경제신문사, 1998.
- 3) 장대성, “한국과 미국의 창업교육 비교를 통한 한국 벤처창업 교육전략 수립,” 한국컴퓨터정보학회지, 제8권 제1호, 2003. 3, pp.129-139.
- 4) 정현호, 한우철,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기술 및 성장전략 분석,” 한국컴퓨터정보학회지, 제8권 제3호, 2003. 1, pp.188-196.
- 5) 조병주, “창업교육 : 교육과정전개와 효과적인 교수방법,” 경영교육연구, 제2권, 제2호, 1998.
- 6) 한국경제, 2005. 6. 16.
- 7) 한정화, “벤처기업과 기업가정신, 벤처기업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상공회의소, 1998.
- 8) Bellu, R.R., “Towards a Theory of Entrepreneurial Behavior,”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on for Experimenting College and Universities, Saratoga Springs, NY, 1987.
- 9) Brockhaus, R.H., “Psycholog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Which Distinguish the Successful from the Unsuccessful Entrepreneur : A Longitudinal Study,” Proceedings of the Academy of Management, 1980b, pp.368-372.
- 10) Carland, J.W., F. Hoy and J.A. Carland, “Who is an Entrepreneur? is a Question Worth Asking,”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Vol.12, No.4, 1988, pp.33-39.
- 11) Chell, E., “The Entrepreneurial Personality : A Few Ghosts Laid to Rest?,”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Vol.3, No.3, 1985, pp.43-54.
- 12) Colton, R. and G. Udell,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s Innovation Center - An Experiment in Training Potential Entrepreneurs and Innovator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21, No.3, 1976, pp.11-20.
- 13) Goldsmith, R.E., “Creative Level and Creative Styl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26, 1987, pp.317-323.
- 14) Herbert, R.F. and A.N. Link, The Entrepreneur,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82.
- 15) Howell, J.M. and Higgins, C.A., “Champion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5, 1990, pp.317-341.
- 16) Hornday J.A. and J. Aboud, “Characteristics of Successful Entrepreneurs,” Personal Psychology, Vol.24, 1971, pp.141-153.
- 17) Jackson, D.N., Personality Research Form Manual, Goshen, NY : Research Psychologists Press, 1967.
- 18) Jackson, D.N., Personality Inventory Manual, Goshen, NY : Research Psychologists Press, 1976.
- 19) Kirton, M.J., A Theory of Cognitive Style, in Kirton, M.J., ed., Adaptors and Innovators : Styles of Creativity and Problem-Solving. London, England, 1989, pp.1-36.
- 20) Komives, J.L., A Preliminary Study of the Personal Values of High Technology Entrepreneurs, in Cooper, A.C. and J.L. Komives, eds., Technical Entrepreneurship : A Symposium, Milwaukee, WI : Center for Venture Management, 1972, pp.231-242.
- 21) Long, W.L., “The Meaning of Entrepreneurship,”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Vol.8, No.2, 1983, pp.47-57.
- 22) Miller D. and C. Droge, “Psychological and Traditional Determinant Structur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31, 1986, pp.538-560.
- 23) Payne, R.L., “Individual Differences and Performance of R&D Personnel : Some Implications for Management Development,” R&D Management, Vol.17, 1987, pp.153-161.
- 24) Sandberg, W.R., “The Determinants of New Venture Performance : Strategy, Industry Structure and the Entrepreneur,” Doctoral

-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1984.
- 25) Sexton, D.L. and N.B. Bowman, "Comparative Entrepreneurship Characteristics of Students : Preliminary Results," in Hornaday, J., J. Timmons, and K. Vesper, ed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Wellesley, MA: Babson College, 1983, pp.213-232.
- 26) Sexton, D.L. and N.B. Bowman, "Personality Inventory for Potential Entrepreneurs : Evaluation of a Modified JPI/PRF-E Test Instrument," *Proceedings of the Babson Entrepreneurship Research Conference*, 1984, pp.513-528.
- 27) Sexton, D.L. and N.B. Bowman, "The Entrepreneur : A Capable Executive and Mor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1, 1985, pp.129-140.
- 28) Slevin, D. and J. Covin, "Juggling Entrepreneurial Style and Organization Structure : How to Get Your Act Together," *Sloan Management Review*, Vol.31, No.2, 1990, p.43.
- 29) Smith, N.R. and J.B. Miner, "Type of Entrepreneur, Type of Firm, and Managerial Motivation :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al Life Cycle Theor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4, 1983, pp.325-340.
- 30) Smith, N.R. and J.B. Miner, "Motivational Considerations in the Success of Technologically Innovative Entrepreneurs," in Vesper, K.H. ed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Wellesley, MA : Babson College, 1984, pp.488-495.
- 31) Smith, N.R. and J.B. Miner, "Motivational Consideration in the Success of Technologically Innovative Entrepreneurs : Extended Sample Finding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1985, pp.482-488.
- 32) Steers R.M., "The Effects of Achievement on the Job-Performance Attitude Relationship,"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60, 1975, pp.678-682.
- 33) Stewart, Jr. W.H., *Psychological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NY : Garland, 1996.
- 34) Stewart, Jr. W.H., W.E. Watson, J.C. Carland, and J.W. Carland, "A Proclivity for Entrepreneurship : A Comparison of Entrepreneurs, Small Business Owners, and Corporate Manage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4, 1998, pp.189-214.
- 35) Vesper, K.H., "New Developments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the *Art and Science of Entrepreneurship*, 1986, pp.379-387.
- 36) Wortman, M.S. Jr. "Entrepreneurship : An Integrating Typology and Evaluation of the Empirical Research in the Field," *Journal of Management*, Vol.13, No.2, 1987, pp.259-279.



저자 소개



이성진

1993년 경기대학교 경영학사
 1995년 경기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1998년 경기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
 정 수료
 현재 오산대학 컴퓨터정보계열 겸임교수